

“건설 기능분야 최고 명장을 찾아라!”

전기용접 부문 우수호 씨, 대회 최고득점자 기록



▲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월 14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7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 건설기능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월 14일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72명의 건설기능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비롯해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박경국 충청북도 부지사, 이필용 음성군수,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삼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딸홀리고

있는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우수 기능 인력 발굴을 위한 건설업계의 중요한 행사로서, 그동안 기능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우수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건설산업을 지탱해 온 당당한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평소 같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정해돈 회장, 배관·용접 참가자 격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대회 개최식 전·후로 배관·용접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직종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선수들에게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돈 회장은 "건축배관과 전기용접은 설비 분야의 핵심적인 종목으로서, 모두 우수한 시공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라는 생각을 잊고 자신의 근무 현장에서 시공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해돈 회장은 오찬장에서 오찬사를 통해 '긴장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자'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및 최삼규 회장 등과 대회장을 방문하여 건축배관과 전기용접 직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 입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 지원

한편, 각 분야에 출전한 기능인들이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대회 직후 63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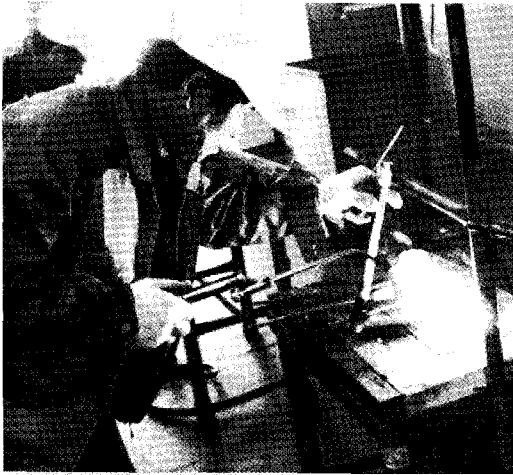
▲ 정해돈 회장은 "평소 실력대로 경기에 부담없이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



▲ 정해돈 회장의 오찬사 "긴장 없이, 하자!하자!하자!"

의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및 상패,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국내외 산업연수 등의 특전을 주며,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 상장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부문에 신영태[(주)정도설비·서울]씨를 비롯해 김국환[(주)동연이앤씨·서울], 도봉민[보산건설(주)·울산경남], 김종관[(유)아남설비사·울산경남] 씨가 입상했으며, △전기용접 부문에는 유수호[(주)금화피에스시·서울] 씨와 이강형[(주)금화피에스시·서울] 씨가 입상했다.



▲ 실력을 육감없이 발휘하며 '불꽃튀는 접전'을 벌이는 대회 참가자들

특히 전기용접 직종에 출전한 유수호[(주)금화피에스시·서울] 씨는 97.5점(100점 만점)을 얻어 이번 대회 최고득점자로 기록됐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근로자 양성지원금' 1억원 전달

이날 대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우수한 청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총 1억원의 '건설근로자 양성지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 전달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건설기능경기대회는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단(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자)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시 · 도 회
건축배관	1위	신 영 태	(주)정도설비	서울
	2위	김 국 환	(주)동연이앤씨	서울
		도 봉 민	보산건설(주)	울산·경남
3위	김 종 관	(유)아남설비사	울산·경남	
전기용접	1위	유 수 호	(주)금화피에스시	서울
	3위	이 강 형	(주)금화피에스시	서울

서기인들의 가을 잔치, 화합 다짐

〈서울시 기계직〉



▲서기회는 지난 10월 8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가을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

서울시청 기계직 전 직원들의 모임인 서울시기계동우회(회장 김수철, 이하 서기회)가 지난 10월 8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서기회 가을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화합과 즐거움 속에서 팀별 단합을 도모하는 족구, 공굴리기, 박 터트리기, 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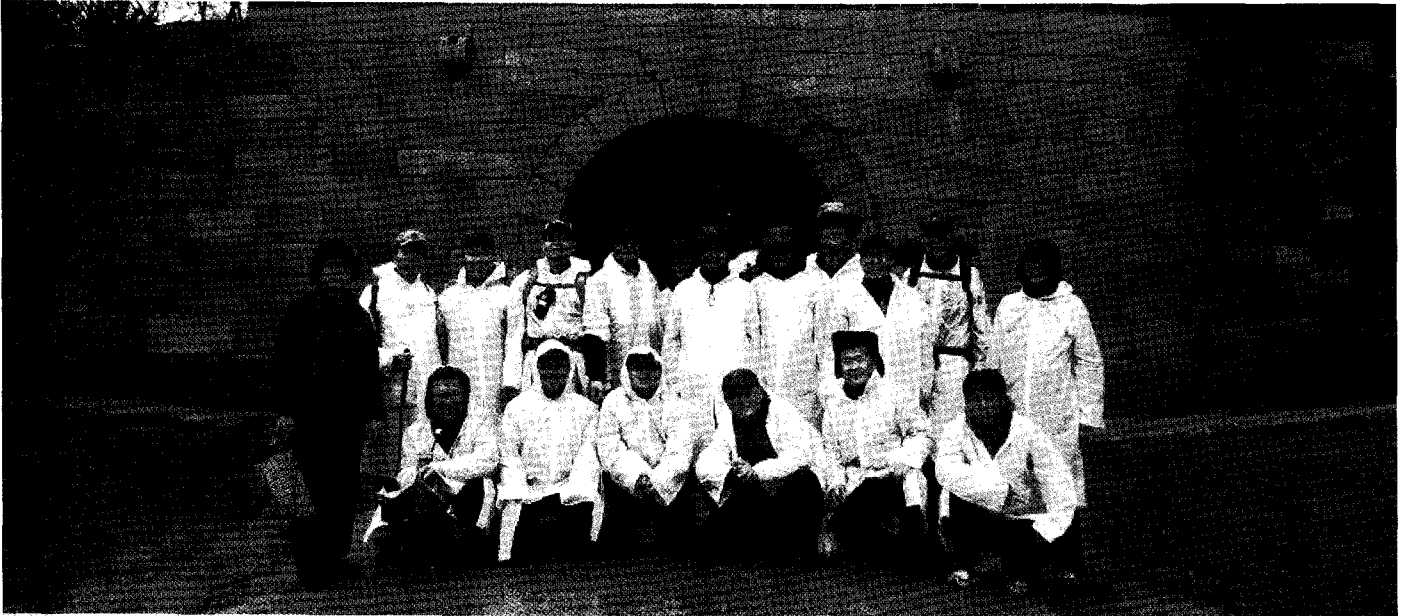
김수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기계직 직원들이 한데 모여 단합을 도모하기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기회의 단합과 더 큰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며 “오늘은 복잡다

단한 업무를 훌훌 털어버리고 심신단련과 함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기회는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25개 구청,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계직원들의 모임이다. 지난 2009년 창립대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서기회는 서울시 전체 기계직원인 5백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김수철 회장(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장)은 “서울시에 종사하고 있는 기계직 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서울시 기계직의 발전을 위해 3년 전 모임을 결성했다”면서 “서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경옛길 탐방 통해 공생발전 모색, 단합 도모



▲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문경새재 옛길 탐방을 하면서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김양섭)가 2011 하반기 정기모임으로 지난 10월 22일 문경새재 옛길 탐방에 나서 친목도모와 함께 화합을 다졌다.

이날 탐방은 특히 발주자(SH공사)와 원도급업계(종합건설업체), 하도급업계(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생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화합을 통해 기계설비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기계설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명단은 표와 같다.

▼ 2011 하반기 모임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직위
김양섭	대림산업	상무
김철영	풍림산업	상무
김정원	삼성건설	상무
조성길	롯데건설	이사
조경래	SH공사	처장
정부일	현대산업개발	팀장
유규상	벽산건설	팀장
안규태	남광토건	팀장
김시덕	대림산업	팀장
서준석	동부건설	팀장
최재필	동양건설산업	팀장
선석태	삼호	팀장
김현경	삼환기업	팀장
오천영	쌍용건설	팀장
김주찬	임광토건	팀장
도준호	풍림산업	팀장
조종선	한라건설	팀장
양영태	한진중공업	팀장
이재곤	한화건설	팀장
박승철	한신공영	팀장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